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❺ 공간 상징 下



▶한줄요약
모든 의례는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기에 본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의례 질서 또한 무너지게 된다.

근원〈體〉과 작용〈用〉은 새의 양 날개와 같아

'좌체우용'의 이치

'성인이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본다.' 이러한 배북향남(背北向南)의 방위는 동양문화권에서 공간을 인식하는 상징적 기준이다. 따라서 주존의 자리에서 봤을 때 좌는 동쪽이고 우는 서쪽이 해당하여, 이를 '좌체우용설(左體右用說)·체용설(體用說)'이라 부른다. 좌측(동)은 근본이 되고 우측(서)은 작용을 나타낸다는 뜻으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러한 원리를 살펴보자.

'영산회상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주변에 10대 제자를 그린다. 그 가운데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짝을 이루어 배치되게 마련이다. 이때 부처님의 좌측에는 늘 가섭존자가, 우측에는 아난존자가 자리함을 알 수 있다. 두타제일(頭陀第一)의 가섭존자는 이심전심으로 부처님의 선법(禪法)을 전수하고, 법을 이어 교단의 우두머리가 된 제자이다. 따라서 체(體)에 해당하니 좌동(左東)에 노인의 모습으로 그렸다.

다문제일(多聞第一)의 아난존자는 부처님 곁에서 시봉하며 설법을 모두 기억해 교법(敎法)을 전수한 제자이다. 이에 젊은 모습으로 용(用)에 해당하는 우서(右西)에 자리하는 것이다. 가섭의 상징은 '근원'에 해당하여 동쪽에 두었다면, 아난의 상징은 '작용'의 의미를 지녀 서쪽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석가모니불과 양쪽 협시보살을 모신 '석가삼존' 또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좌측에 오고, 실행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은 우측에 오게 된다. 문수보살이 상징하는 '지혜'는 양(陽)의 정신적 영역에 속하여 동쪽이고, 보현보살이 상징하는 '실행'은 음(陰)의 육체적 영역에 속하여 서쪽인 것이다.

가람배치에서도 이러한 구도가 잘 드러난다. 불국사에는 중문인 자하문 좌우로 연결되는 회랑 모서리에 각각 경루(經樓)와 종루(鐘樓)가 세워져 있다. 이때 경전을 모신 경루는 좌동에, 사물(四物)을 갖춘 종루는 우서에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서치상 교수는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은 체(體)에 해당하고 중생에게 법음을 전하는 법구는 용(用)에 해당하여, '좌체우용'이 조영 원리로 작용한 것이라 보았다. 그 위치가 일정하니 이를 '좌경루 우종루'라 일컫는다는 것이다.

경루나 장경각이 있는 사찰은 많지 않지만, 범종각은 대부분의 큰절에 갖추고 있다. 각 사찰의 범종각 위치를 살펴보면 본전을 중심으로 우측인 서쪽에 자리하여, 체를 드러내는 용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동서 개념에서 자칫 동쪽을 우위로 여길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한쪽만으로 날 수 없는 새의 양 날개에 우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보자면 머리와 가슴에 머무는 이상보다 발을 내딛는 실행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때로 우선하는 의미에 따라 동서가 바뀌기도 한다.

부엌의 위치, 대방의 자리

사찰의 공양간은 민가의 부엌과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구조와 기능은 거의 같다. 그러나 출가 수행자들이 모여 대중생활을 하는 사찰의 특성에 따라, 일반 부엌과 다른 원리가 작동하기도 한다.

민가에서는 부엌을 여성의 공간이라 하여, 음(陰)에 해당하는 집의 서쪽에 두었다. 우리나라 부엌에 대한 초기기록으로 3세기경 『삼국지』「한전(韓傳)」·「변진전(弁辰傳)」에 '부뚜막[竈]은 대체로 서쪽에 위치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풍습은 이어져 『증보산림경제』에 "부엌을 서남쪽에 두면 좋지만, 서북쪽에 두면 나쁘다"고 하였다. 특히 부엌을 서쪽에 둘 경우,

동서·좌우 공간상징 살피는 건
전통·고전 질서 이해하기 위함
모든 의례 의미 부여하는 행위
본래 약속 잊으면 의례 무너져



사십구재에서 불단을 향한 '남동여서'의 자리

쌀을 일거나 밥을 풀 때 조리질·주걱질이 자연히 집 안쪽을 향하기에 복과 재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담론도 전한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사찰의 부엌은 이와 반대의 방위를 취한다. '서승당 동고원'이라 하여, 선종 사찰에서는 남북축을 중심으로 스님들이 참선과 숙식을 하는 승당(僧堂)은 서쪽에 두고, 음식을 만드는 고원(庫院)은 동쪽에 둔 것이다. 그 이유는 서쪽은 손님의 자리이고, 동쪽은 주인의 자리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승당은 선방을 뜻한다. 선방 스님들을 '선객(禪客)'이라 부르듯이, 전국의 선객들이 찾아와서 석 달간 참선 수행하다가 안거를 마치면 모두 흩어진다.

이에 비해 사찰을 지키며 수행과 포교를 이어가는 본채 스님들은, 안거 때면 선방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 뒷바라지하게 된다. 따라서 부엌은 곧 주인이 머무는 영역에 해당한다. 아궁이에 부뚜막을 설치하고 솥을 거는 것은 터전을 잡겠다는 뜻이다. 그 영역을 동쪽이라 보았으니, '동(東)이 곧 근원'이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부처님 좌우에 자리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 영산회상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대방의 '청산'과 '백운' / 울산 석남사

당송시대 선원에서 총림의 직제를 동서(東序)와 서서(西序)로 나누면서, 서서의 소임은 방부를 들인 선객이 맡고 동서는 본채 대중이 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늘날 사찰 공양간의 방위는 절의 입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채 스님들이 선방 스님들을 뒷바라지하는 구도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동서 관념의 적용은 대방의 자리 배치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진다. 발우공양을 할 때는 좌차(座次)라 하여, 법랍에 따라 앉는 순서를 엄격하게 지키게 된다. 대부분 한국사찰의 대방에는 불단을 마련하여 부처님을 모셔두고 있다. 따라서 불단을 북쪽으로 하여 맞은편에 사찰의 가장 어른인 조실(祖室)이 앉게 된다. 조실스님의 자리인 어간(御間)의 좌우에 법랍 순서대로 앉게 되는데, 이때 동쪽을 '청산(靑山)'이라 하고 서쪽을 '백운(白雲)'이라 부른다.

오행에 따르면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찰에 상주하는 스님들을 '산처럼 자리를 지킨다'는 뜻으로 청산이라 하고, 동쪽에 앉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철 참선을 위해 찾아온 선방 스님들은 '구름처럼 머묾이 없다'하여 백운이라 하고, 서쪽에 앉는다.

아울러 청산·백운을 중심으로 삼함·입승·지전·오관 등 여러 소임의 자리를 정하고, 이를 한지에 먹으로 써서 대방의 벽 아래쪽에 붙이게 된다. 이 가운데 '삼함(三緘)'은 총무·교무·재무의 삼직을 말한다. '봉할 함(緘)'자를 쓰는 것은, 행정과 관련된 일을 맡다 보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항상 몸과 입과 뜻[身口意]을 삼가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삼함 또한 본채 승려들이 앉는 청산 쪽에 오게 된다.

선방과 부엌, 산과 구름은 주인과 객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동과 서를 각각 '고정'과 '유동'으로 여기는 관념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남과 여, 생과 사

마지막으로 공간 상징에서 빠질 수 없는 남녀·생사의 방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남녀의 방위는 음양의 이치에 따라 남자는 양이니 동쪽에 오고, 여자는 음이니 서쪽에 온다고 하여 이를 '남동여서(男東女西)'라 부른다. 혼례에서 남녀의 위치는 북쪽의 주례를 중심으로 볼 때 남자가 좌측, 여자가 우측이 되니 이를 '남좌여우(男左女右)'라 한다. 따라서 남동여서는 남좌여우와 같은 말이다. 전통혼례에서는 주례를 따로 두지 않기에, 병풍을 두른 곳이 북쪽에 해당한다.

서양의 혼례에서 남녀의 방위는 이와 반대이다. 현대식 혼례는 서양의 풍습에 따라 행하여 신랑·신부의 자리 또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서양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왼쪽에 서는 것이 풍습이라 하는데, 복식과 의례공간이 바뀌었다고 하여 남녀의 위치까지 바꿀 이유는 없을 듯하다. 제사를 지내거나 어른에게 절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이다. 남녀가 나란히 서서 조상신이나 어른에게 절을 할 때는 남자가 동쪽에 오고, 여자가 서쪽에 오게 된다.

그런데 죽은 자의 세계는 이와 반대이다. 부부 양위를 함께 제사 지낼 때 남자의 신위(神位)는 서쪽, 여자는 동쪽에 모시게 된다. 묘에 합장(合葬)하거나 나란히 묘를 쓸 때도, 생시와는 달리 '여동남서·여좌남우'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생과 사를 구분하는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음계(陰界)는 양계(陽界)와 다른 원리가 작동한다고 여겨, 비일상을 적용함으로써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금줄을 칠 때 일상의 전도(顚倒)를 나타내기 위해 오른쪽으로 꼰 평시의 새끼줄을 쓰지 않고 '왼새끼'를 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금줄을 쳐서 제의를 치르는 동안에는 일상에서 벗어난 신성한 시공간이 되어, 삿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조상신의 자리에서 볼 때 메(밥)와 갱(국)의 위치도 바뀌게 된다. 국을 좌측에, 밥을 우측에 놓음으로써 생전과 거꾸로이다. 예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에서는 대개 이러한 법도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메와 갱의 위치뿐만 아니라, 수저 또한 맨 좌측에 진설함으로써 이승과의 차별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형태가 실제 관행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 주변에서 더러 본 적이 있다.

지금까지 동서·좌우 등의 공간 상징을 살펴본 것은 전통과 고전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오늘날의 우리 또한 이러한 질서 속에서 크고 작은 의례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의례는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기에, 본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의례의 질서 또한 무너지게 된다. 공간의 구조화는 의례의 거시적인 틀에 해당하니, 의례의 시공간에 독자적인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